

## 10/6(수)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9

데살로니가후서 3:7-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 사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과 함께 성도들에 대한 축복의 말로서 그의 두번째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본을 보임

바울은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인해 무위도식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장을 날리면서 자신과 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했을 때 행한 모범적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7-9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행한 모범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다’는 원어적으로 6절에 나오는 ‘게으르게 행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사역에 있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텐트를 제작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기도 했습니다(행 18:2-3,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이같은 부업을 한 것은 나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것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었습니다(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다른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정당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언급합니다(고전 9:10,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따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따는 것이라.”).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인해 무위도식 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의 일에 있어 게으르게 살거나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무위도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과 영적인 섬김으로 인해 세상 일과 가정의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됩니다(고전 9: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 권면과 치리

바울은 어제 묵상했던 6절의 말씀대로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낙심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겁내다, 시들다, 약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경건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로 인해 실족할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이처럼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14절에 기록된 바울의 경고(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동일합니다(마 13:29-30,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천국)가 다른 것은 지상 교회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과 심지어 가라지와 같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교회는 인간적인 다툼과 파벌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실족하고 낙심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날 일부 성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역 활동이나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는 일을 기피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본래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거나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돌봄 그리고 인내와 사랑의 결과로 인해 한 사람의 영혼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단적인 사상과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치리의 대상이지만 미성숙하고 부족하며 연약한 성도들은 원수와 같이 대할 것이 아니라 형제 같이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하이티를 위한 기도:** 대통령 암살과 지진 그리고 허리케인 등으로 인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하이티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가의 기강과 국민들의 생활이 회복되도록 중보합니다. 또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학교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말레이시아 홍리브가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